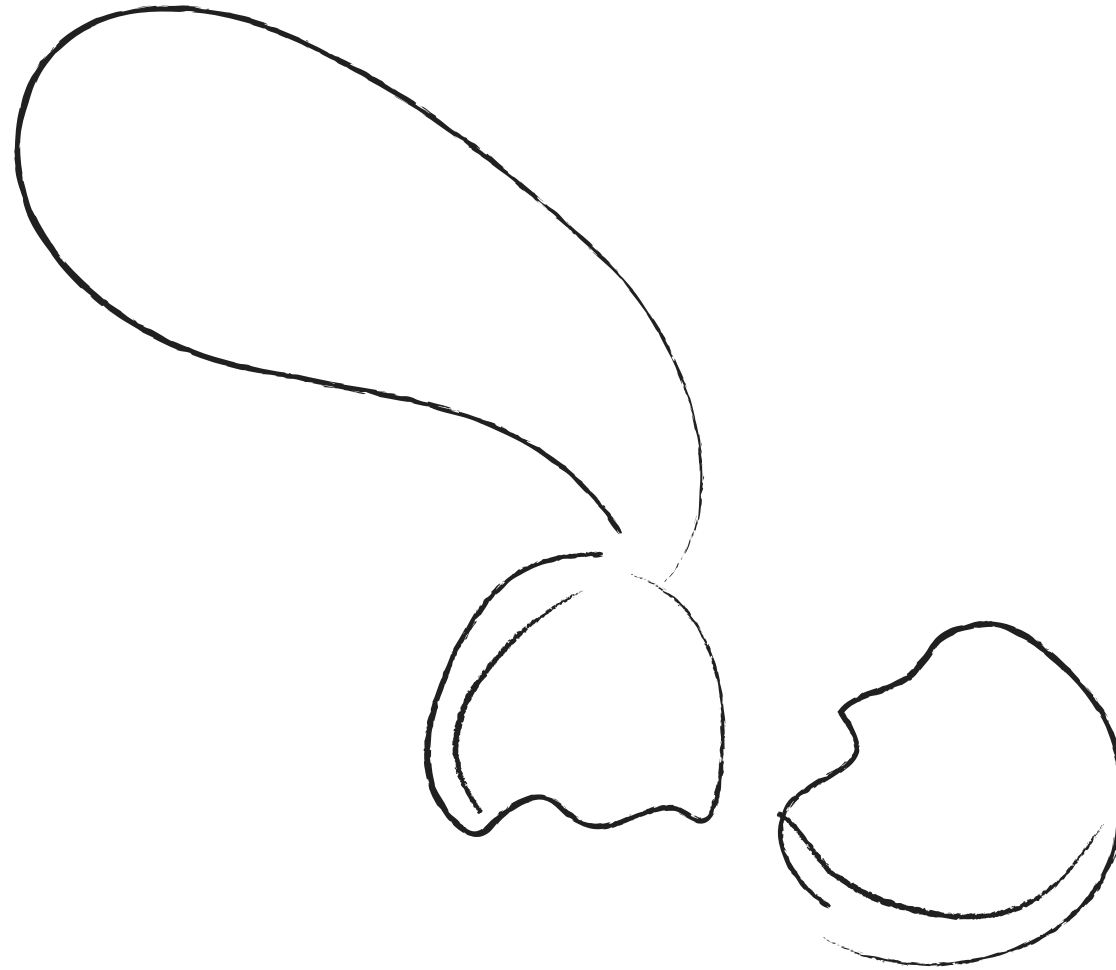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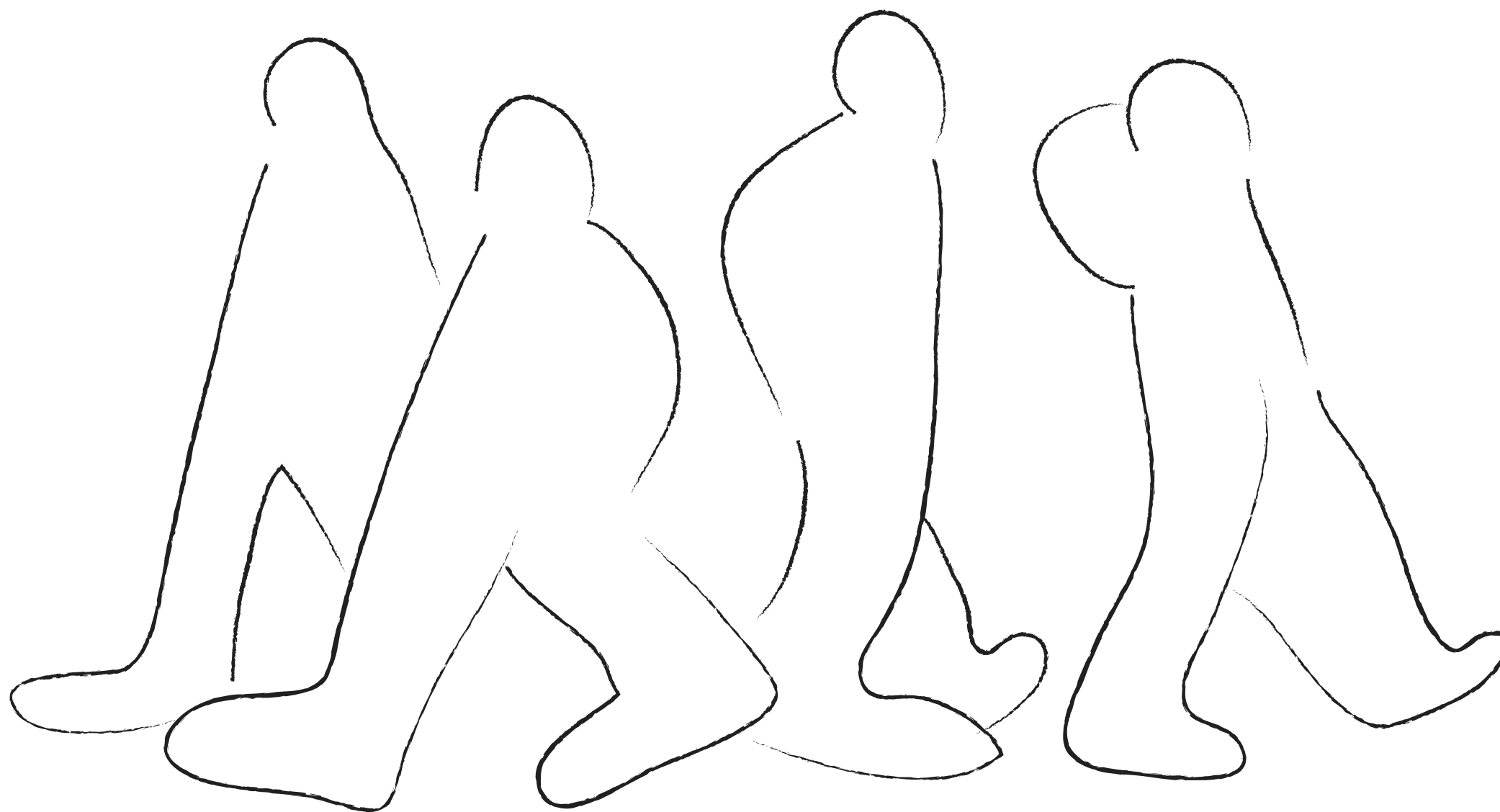
믿음의 영역은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다. 그렇기에 그것이 편의성을 위한 도구와,
방어기제의 수단으로써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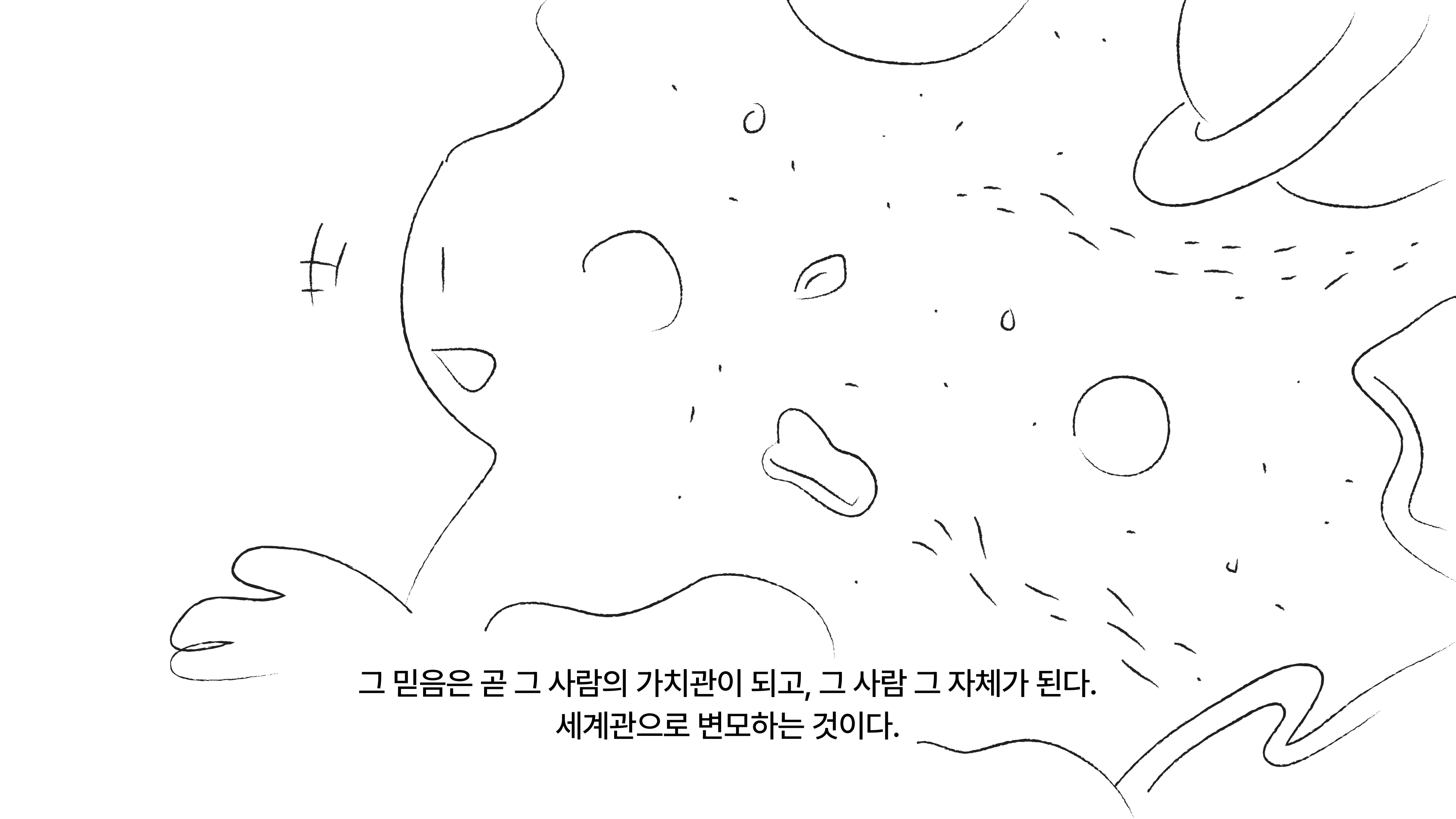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,
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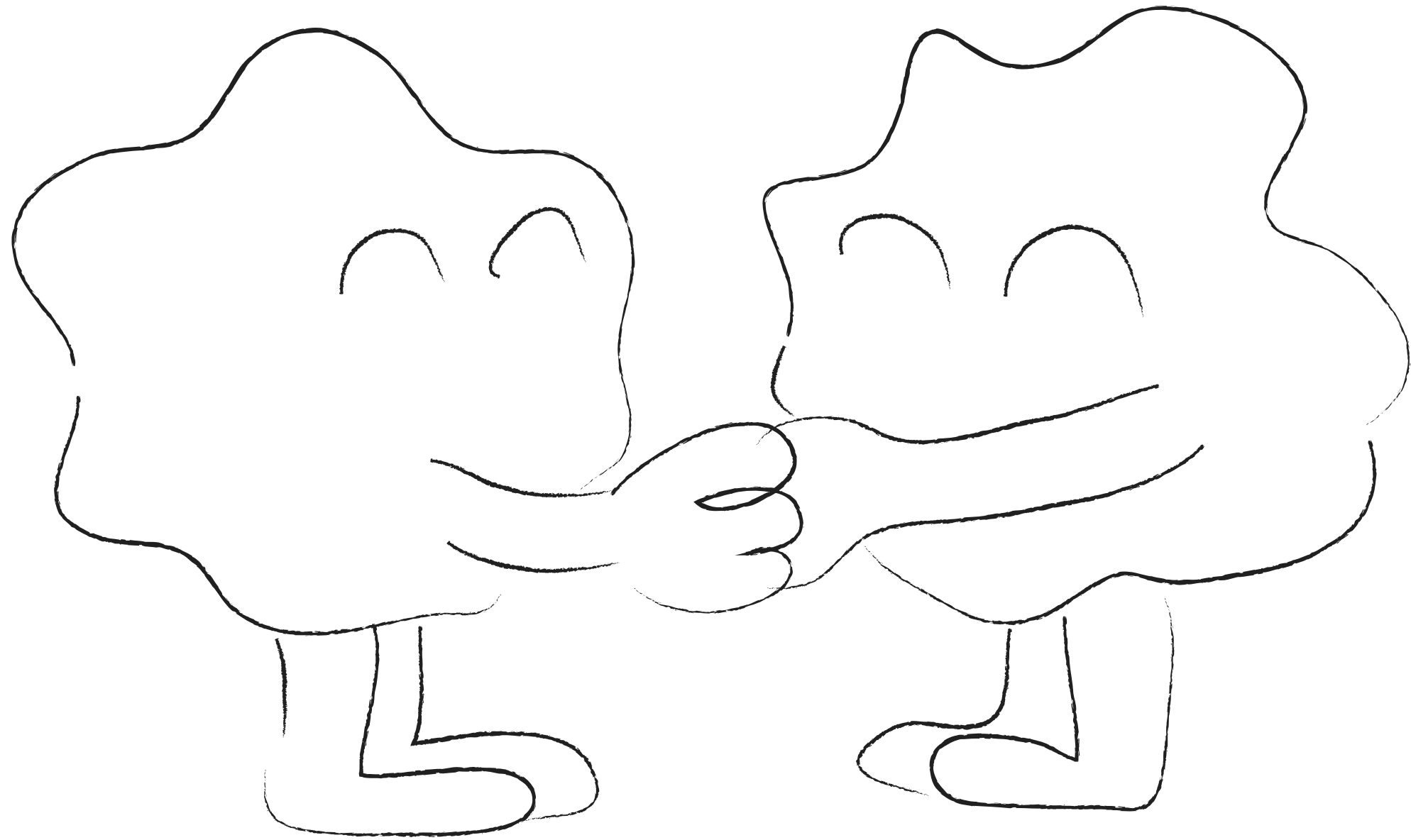
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,
그를 완벽하게 이행해 낼 능력을 온전히 갖출 수도 없다.



그러나 모두가 각자 자신이 옳다고
생각하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간다.

The background of the image is a minimalist line drawing. It features several large, flowing, organic shapes that resemble clouds or smoke, drawn with thin black lines. Scattered throughout the space are numerous small, hand-drawn elements: circles, ovals, and short, curved strokes, some of which are dashed. These elements are distributed across the upper and middle portions of the frame,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. The overall style is sketchy and artistic, with a focus on line work rather than solid color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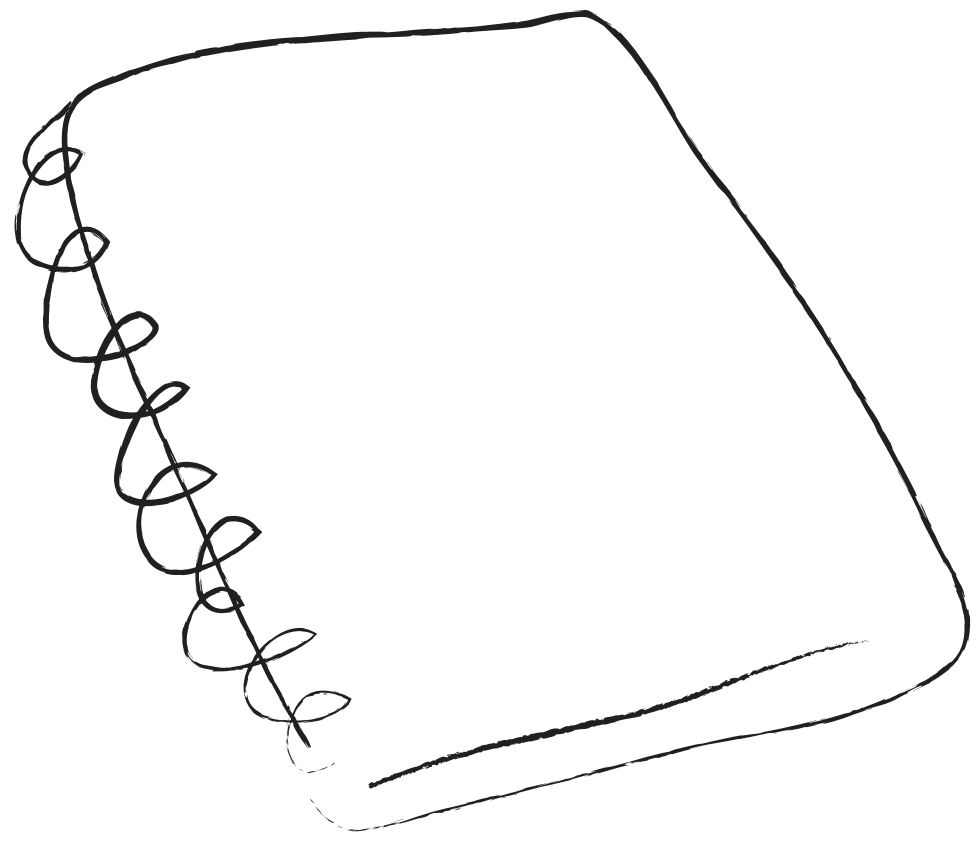
그 믿음은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, 그 사람 그 자체가 된다.
세계관으로 변모하는 것이다.



독립적이고,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그 거대한 세계관을 품은 채-
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,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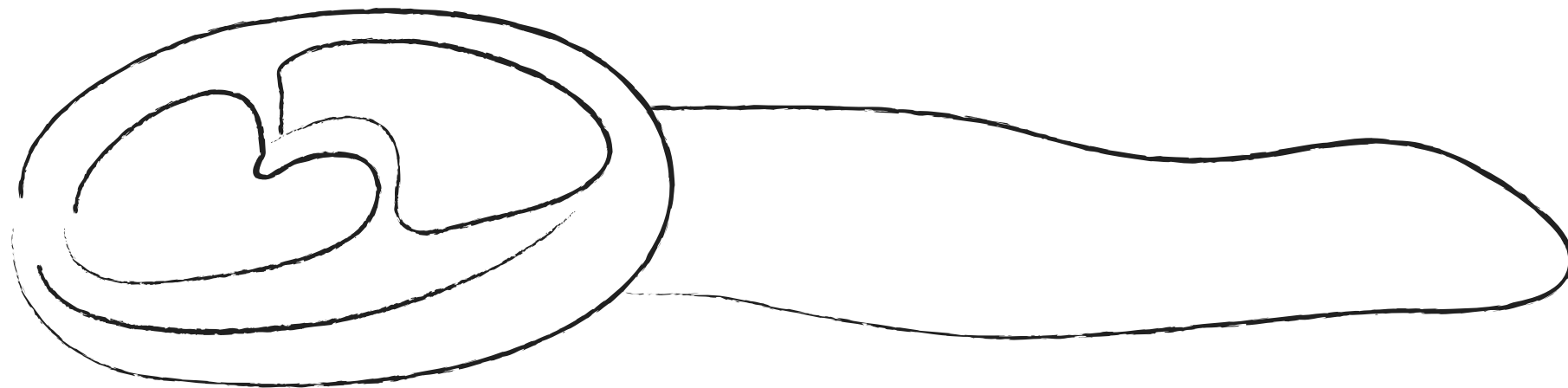
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
자주 이루어져야 한다.



어떤 가치를,
어떤 생각을 믿고 있는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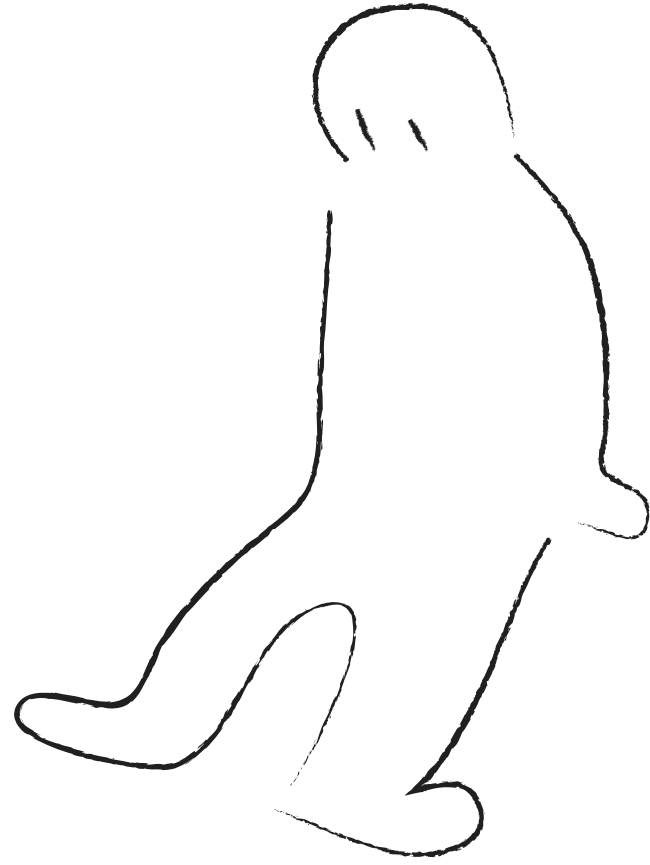
믿음을 통해 사람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
'행복'이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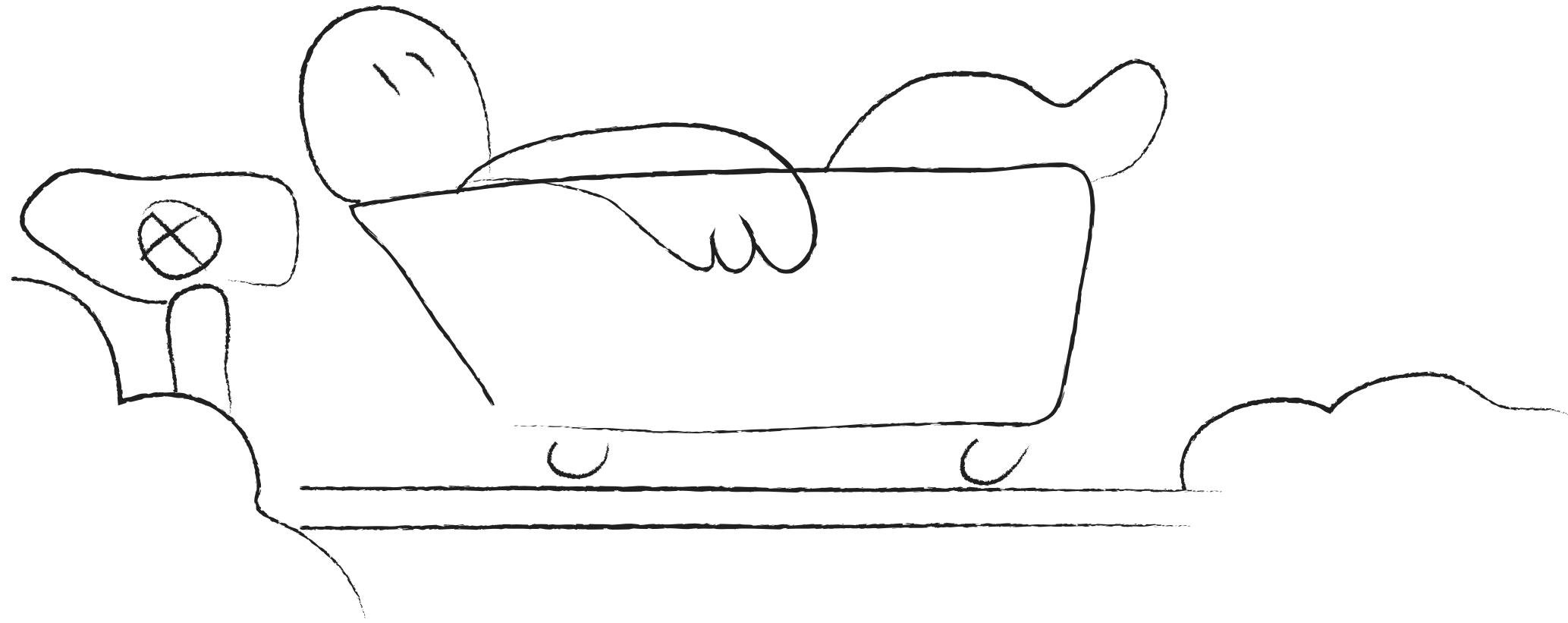
각자의 믿음대로 그 추상적이고도
직관적인 개념을 달성하려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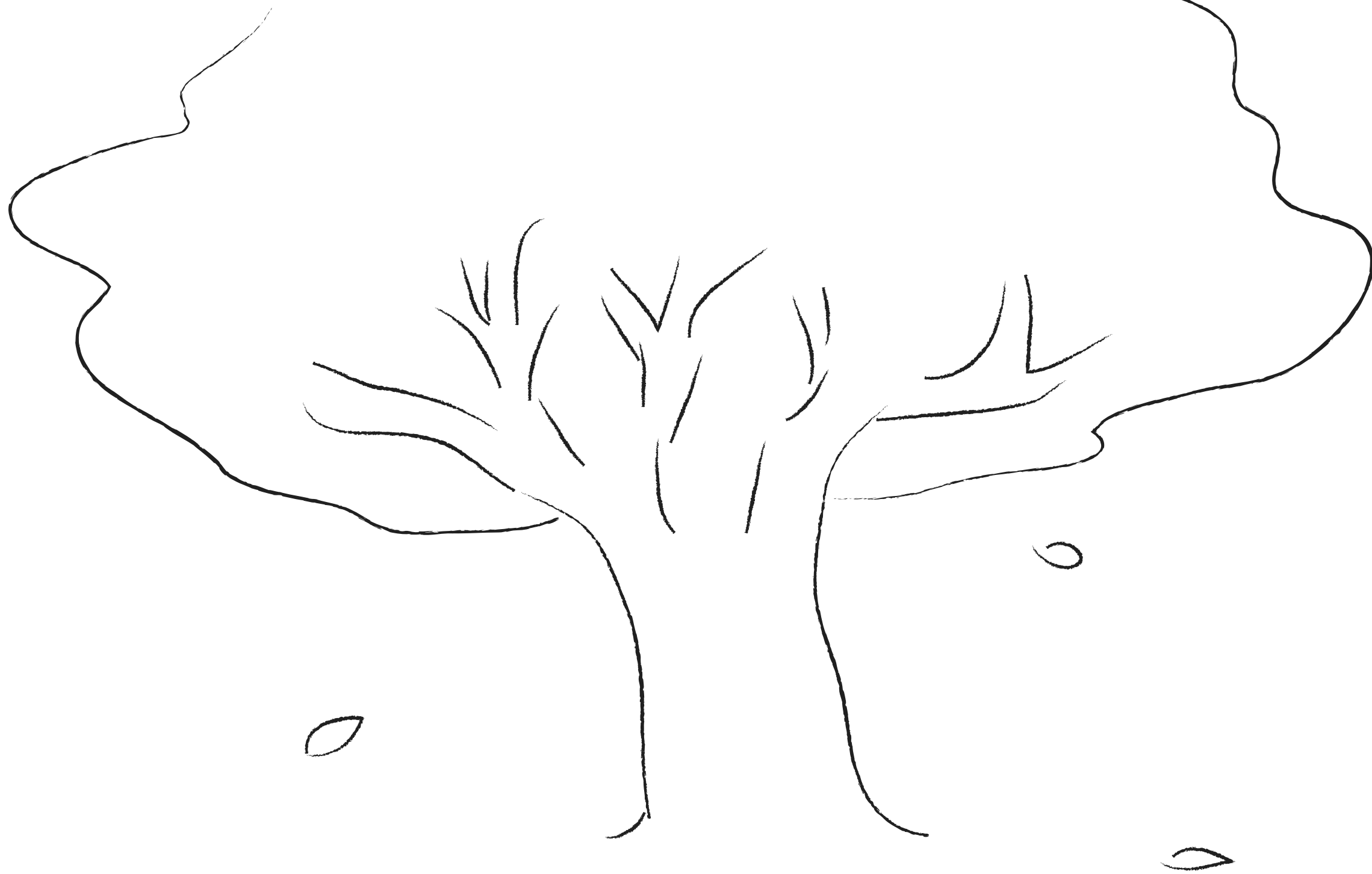
그러나 그 과정에 '자유로움'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면,
이는 그저 목표수단적인 방향성에 불과할 뿐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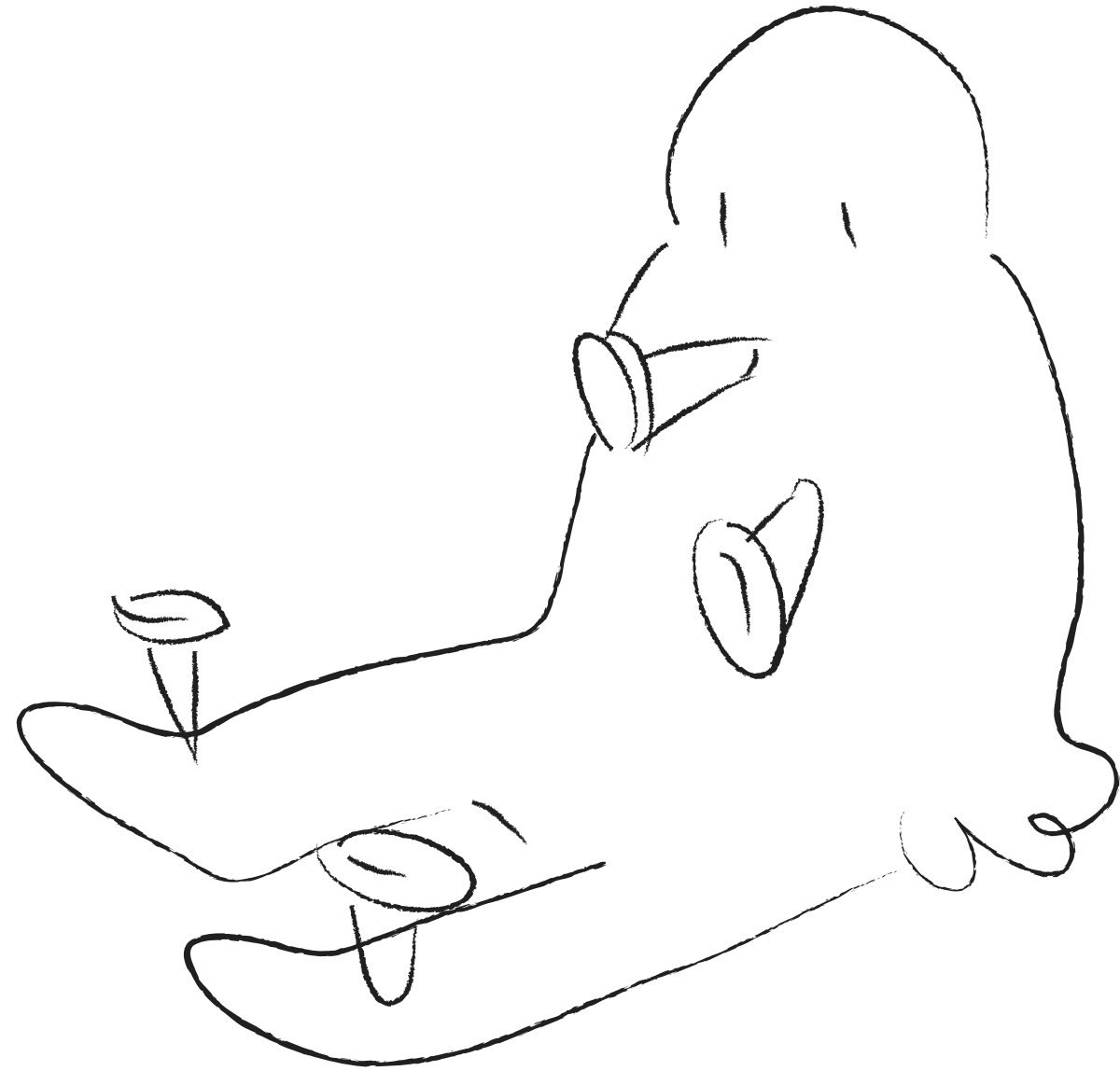
진정한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
이해하지 못하게 된다.



맹목적으로, 공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은
결국 영적인 자유로움의 부재로부터 도출된다.



외적인 잣대와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
스스로의 행복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, 결정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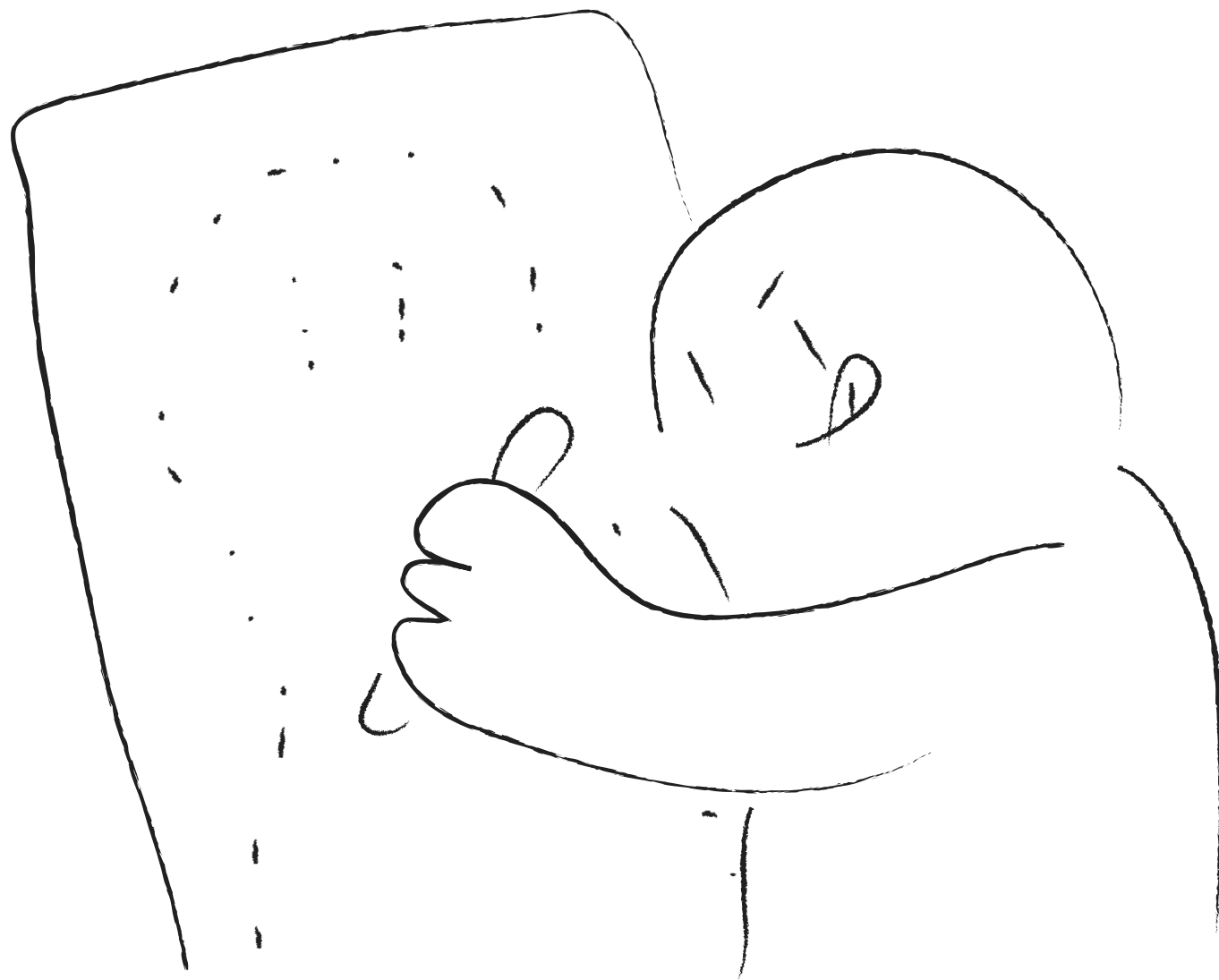
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적인 모든 것들이
정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때이다.



'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해' 라는, 흔히 말하는 '갓생' 의
필요충분조건들이 직접적으로, 간접적으로 잣대가 되어



개인의 내면적 자유로움을, 즉,
개인의 믿음을 깨트리고 만다.



우리는 삶에 대한 고찰보다는 남의 삶을 본따
그것을 정해진 답처럼 생각해 버리곤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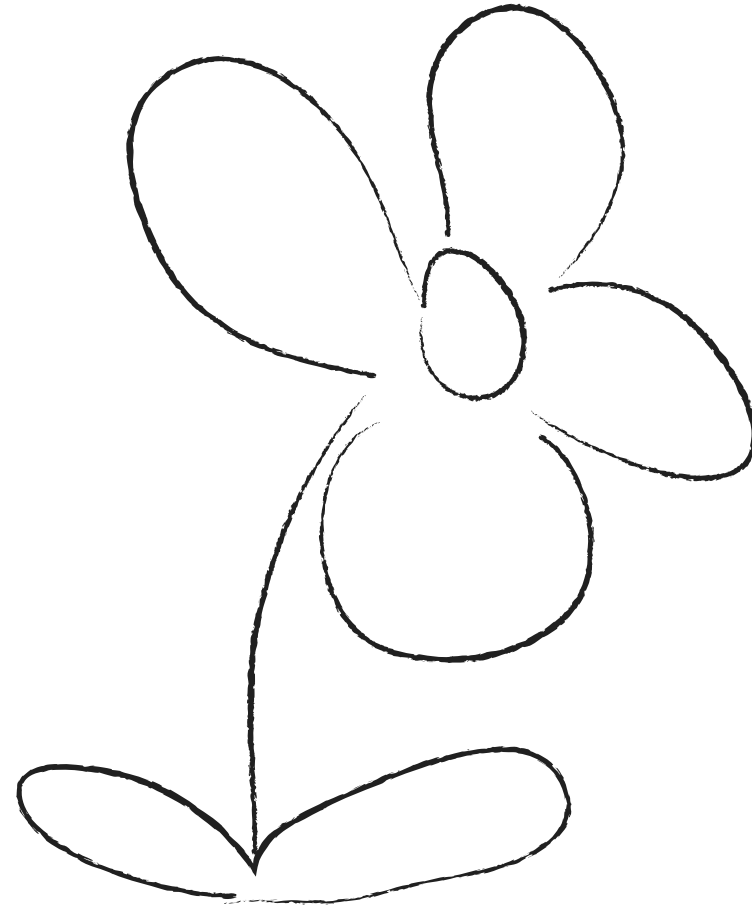
내가 이상을 실현하는 것에 더 가치를 뒀
무감각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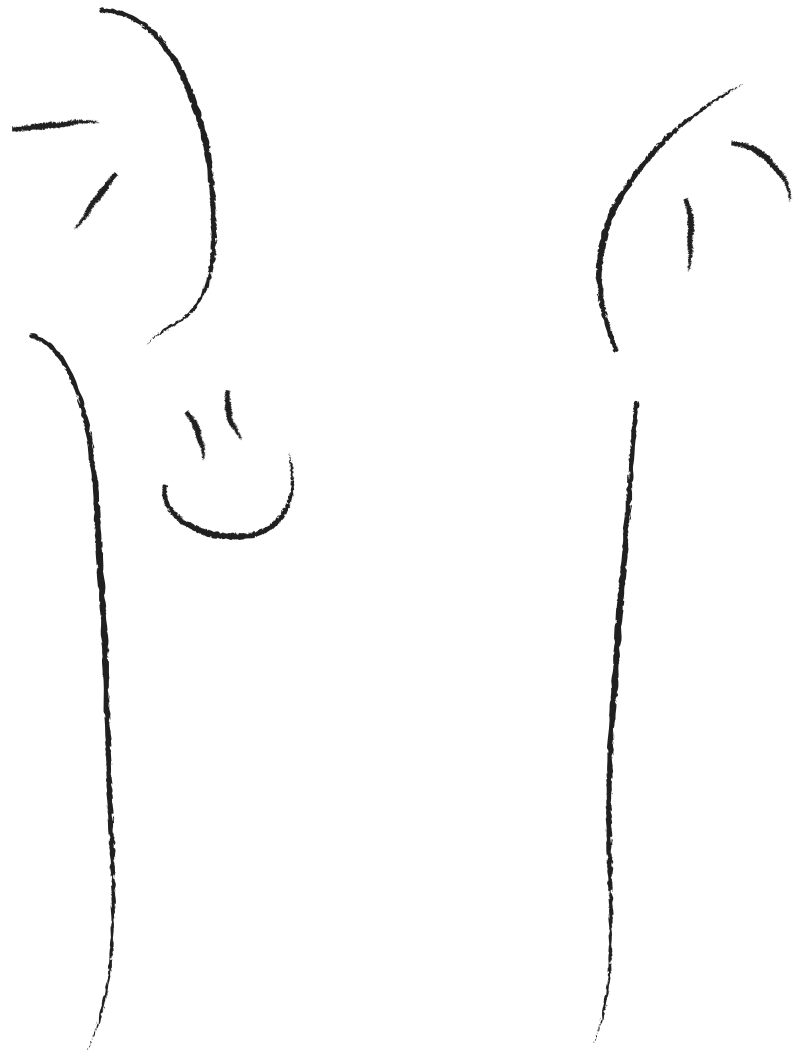
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
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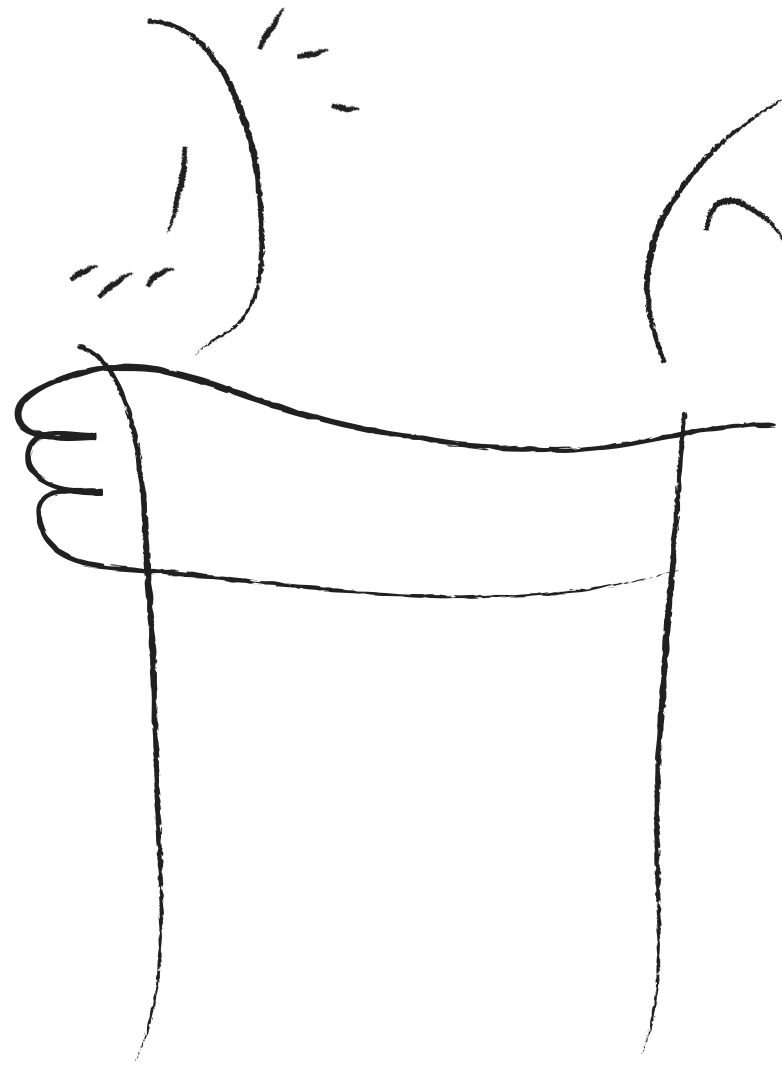
결국 모든 근거는 인위적인 기준 아래에서
존재할 수 있는 것들 뿐이다.



살아간다는 행위에 정해진 답은 없으며,
각자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
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.



그러니 나는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으면 좋겠다.



그 믿음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아,
당신이 바라는 궁극적인 행복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한다.